

대행 스님

내 마음 하나에 의해 일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모든 것은 누구의 짓이냐? 잘못하든 잘하든 자기의 짓이라 이거예요. 남이 잘못한다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더라도 만날 말로 잘못했다고 긁적거리면 집안이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실로 이끌어지질 않아요. 여자가 그렇더라도 그렇고, 또 자식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당신밖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믿었을 때, 바로 그 천체 무전통신기와 에너지는 거기로 속사포같이 그냥 한 찰나에 가서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전기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이 저쪽에도 들어오고 이쪽에도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심성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공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놈이 뭣고?' 하고 화두를 잡고 한다면, 내가 바로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또 거기다가 붙여서 잡고 있다면 몇백 년이 가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노인네들 공부하실 때는 뭐, 조선어니 뭐니 해서 과목이 몇 가지밖에 없었죠? 지금 보세요, 어떤가? 예전에는 무명옷을 입고 명주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무명옷 입은 분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촛불을 켜고 앞장서서 밝게 중용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이지 어디 따로 불법이 있겠습니까?

법당에 가면 법당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고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둘이 아닙니다. 왜 부처님께서 뼈 무더기를 보고 그렇게 삼배를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생자부이신 당신께서 어째서 거기다가 예배를 합니까?" 하니,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겠지요? "이것이 바로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느니라. 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니라.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걸 터득을 못 했다면 어찌하겠는고."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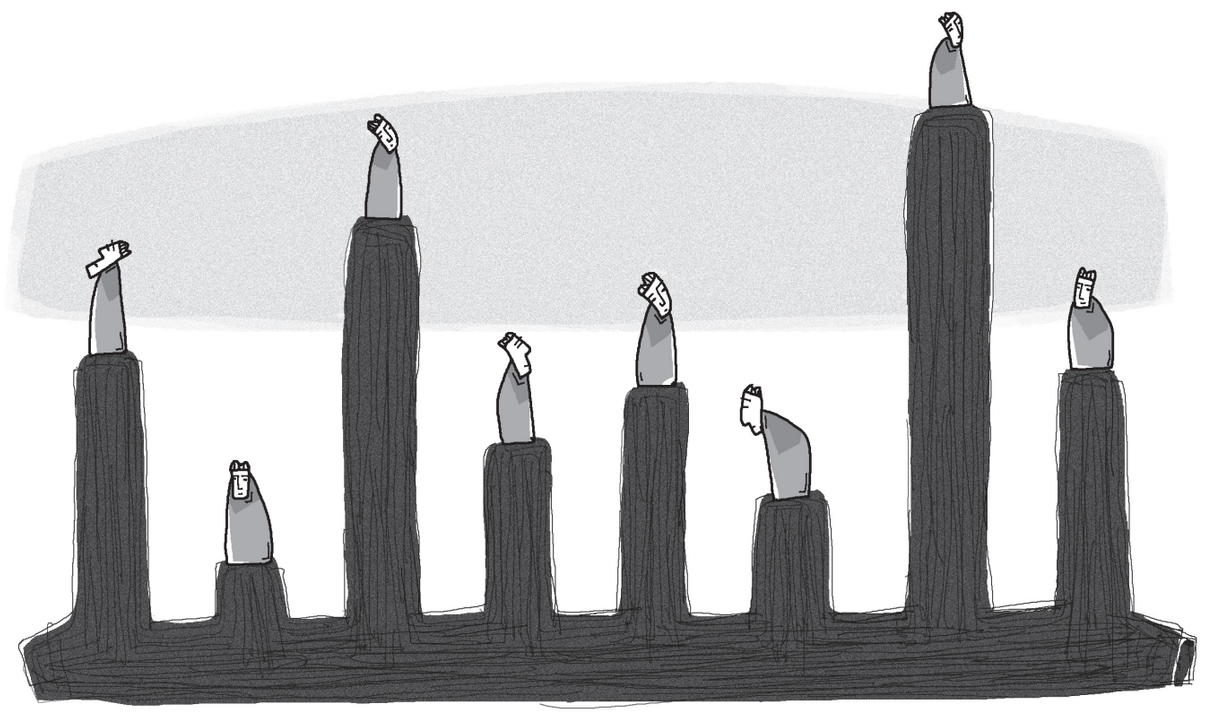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거쳐 왔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 이것 참 어렵겠는데.' 하고선 '이것이 좋겠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다리가 길다 다리가 짧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다음에 나올 때는 생각한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한 생각이 진화를 시키고 그 마음에서 진화력이 조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이 됐었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항상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파리가 구더기를 모르고 구더기가 파리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파리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배 속에 구더기가 들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기 배 속에 구더기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말을 한 번 더, 재차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환과 병고와 가난에 찌들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도 가리고 잠자리도 가리고 온통 여러 가지로 가리면서 석 달 열흘을 기도를 하고 인등을 켜고 이렇게들 합니다. 몸뚱이를 아무리 씻어봤던들 마음보다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남편을 굶주리게 하고 가족도 굶주리게 하고 애들도 굶주리게 해서 나쁜 길로 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그렇게 일심으로써 주인공 안테나에 맡겨 놓고, 병고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을 때 그 병고를 그냥 그대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그렇고 모든 게, 일체가 다 그러하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명에 묻혀 있는, 땅속에 있는 보배와 같다고 해서 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속에서 금을 찾아서 바깥으로 캐내서 광을 내야만이 빛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무명 속에 묻혀 있는 그 보배를 바로 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바깥으로 광명이 나가니 그게 관세음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체가 스스로 보살행이 되게 되니까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250계나 348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모든 이치에 맞게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부처님 이전에 단군께서 가르치신 천부경 그 81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신다면 불법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즐겁고 환희로우며, 내 마음 하나에 의해 일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구 배에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배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부산을 가는지 제주도를 가는지 여길 왔는지 저길 갔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고 가는 선장이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너밖에는 나를 튼튼하게 할 수 없어. 네가 건강하고 네가 회전을 잘해 줘야 내가 건강하지 않겠느냐? 너를 끌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참, 그냥 뭐, 회전을 잘해 주지요. '아하! 지금 여기 가고 있구나.' 하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법이죠.

이거는 과학으로도 해명 못 하고 의학으로도 해명 못 하고, 이건 어떤 것으로도 못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그 점을 지난번에도 얘길 했지만, 정자 난자에 의해서 영원한 자기 자체가 태어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왜 자식들이 부모들과 성격도 닮고 모습도 닮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정자 난자의 그 뜻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